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chool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Si-Yeon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2016)'의 횡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 총 3,4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 중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chool adjustment of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The data of 3,406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tudy on '2016 Measurements of Korean Youth Competence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I' by the NYPI were analysed. For data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alysi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social relations were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2) their social relations affected stress coping style, (3) stress coping style affected school adjustment, (4) stress coping style was proved to have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ocial relations, stress coping style, school adjustment, middle school students, a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i-Yeon Lee(syl@sjs.ac.kr)

Received September 1,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3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교생활은 인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고[1],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청소년 각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능한 성인으로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2]. 201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3],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는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58%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는 가족, 지역사회와 더불어 청소년이 가장 많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공간이다. 무엇보다도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향후 청소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의 열쇠가 될 수 있다[4].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절은 애착의 대상이 부모와 교사에서 또래로 전환하고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가 확대되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도 재편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재구성되고 이와 동시에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5-7]. 또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 또래관계 그리고 교육환경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 시기이므로 다른 시기보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8]. 이처럼 급변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도 지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다면 역경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하게 된다[9].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중에서도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는 탄력성 발달에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10,11],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12], 학생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심리적 학습 환경 요인이 된다[1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14],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의 지지 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모두가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5]. 즉 청소년의 가족과 학교, 또래는 기본적인 사회 관계이고 가족 중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 친구의 관계에서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16].

한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Stress Coping Style)이다. 초기 청소년에 해당

하는 중학교 시기에는 신체적 및 생리적인 측면은 급격히 발달한다. 그러나 인지적·정서적인 측면은 미성숙하여 초등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와는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7]. 또한 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할 스트레스를 아동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18]. 조사에 따르면[3],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생활에서 45.0%, 가정생활에서 51.8%, 학교생활에서 29.8%의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입시제도로 인한 경쟁과 학업성취의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청소년의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심해질 경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적응 문제와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19].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갖고 학교 환경,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공부문제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20]. 이처럼 청소년들은 새로운 성장과 발달로 인한 결과로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경험한다[21]. 한편 Lazarus[22]는 인간은 스트레스를 재조직하여 자신의 적응적인 삶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경험을 재조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등 청소년 발달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요인인 부모와의 갈등,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2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25], 학교생활적응 점수와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록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 학습활동 및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상술한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연구가 이루어졌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변수 간의 단선적인 영향 관계를 넘어서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고, 성장을 위해서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하여 학교 환경과 개인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26]. 특히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반영하고, 중학교 이후에도 청소년의 삶이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7].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28],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중학생 대상의 연구들에서도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9,30].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지지[31]와 부모와의 좋은 관계[32-34]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지지적이고 만족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32],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일수록 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청소년들이 가족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대상과 환경이 또래와 학교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또래와의 관계[35]와 교사관계[36]는 청소년의 정서 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37].

2.2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한 순간에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노력이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는 사고와 행동의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된다[25]. Lazarus와 Folkman[38]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완충될 수 있다고 하였다[39].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같은 환경에서도 청소년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40]. 다양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다루는 능력은 향후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3].

이처럼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41].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논한 선행연구에 따르면[42-44], 부모와의 관계는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만족스러운 대화와 지지는 중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때와 달리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46],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가족,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 모두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요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고[28,30],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14,44,46].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23,25],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사회적 관계 요인과 복합

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47-50],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경제수준 및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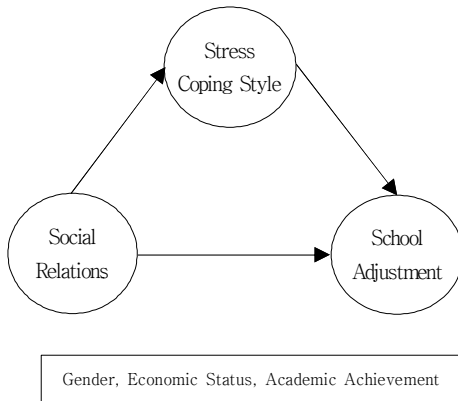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2016년에 실시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Ⅲ’의 자료(NYPI 횡단조사)[51]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층화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 조사이다. 총 표본 조사 수는 10,319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 조사의 최종 분석에 활용된 중학생 총 3,4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NYPI 횡단조사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1]. 척도의 문항은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나는 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축제 등)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3으로 나타났다.

3.3.2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NYPI 횡단조사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1].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고, ‘나는 ()와 자주 놀러 가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나는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와 비밀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 ‘()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03이고, 부모와의 관계는 .788, 친구관계는 .757, 교사관계는 .717로 나타났다.

3.3.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NYPI 횡단조사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1]. 이 척도는 생활 통제에 대한 태도(‘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주관적 규범(‘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인지된 행동 통제(‘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이고, 문항의 점수 범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8로 나타났다.

3.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구에 근거하여[47-50],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을 통제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1'에서 7점까지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은 응답자의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로 조사하였다. 60점 이하는 '1'로 처리하고, 61~65점은 '2', 66~70점 '3'으로, 71~75점은 '4', 76~80점 '5', 81~85점은 '6', 86~90점 '7', 91~95점 '8', 96~100점은 '9'로 처리한 9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6.0 window를 활용하였다. 기초통계 자료는 기술통계로 제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서 Baron과 Kenny[52]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Sobel 검증[53]을 추가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 대상자는 중학생 총 3,406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1,655명(48.6%), 여학생 1,751명(51.4%)이고, 13-14세 1,109명(32.6%), 15세 1,161명(34.1%), 16-17세는 1,136명(33.3%)으로 나타났다. 변수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모와의 관계 3.18(SD=.64), 또래관계 3.37(SD=.53), 교사관계 2.43(SD=.59), 스트레스 대처방식 3.11(SD=.48), 학교생활적응 2.97(SD=.55)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7점 만점에 평균이 4.24(SD=1.18)이고, 학업성적은 9점 만점에 평균 4.58(SD=2.72)로 나타났다. 측정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정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06)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ocial Relations	Parent	3.18(.64)	-.781	.490
	Peer	3.37(.53)	-.845	.979
	Teacher	2.43(.59)	.086	.351
Stress Coping Style		3.11(.48)	.056	.617
School Adjustment		2.97(.55)	-.109	.397
Economic Status		4.24(1.18)	-.234	.594
Academic Achievement		4.58(2.72)	.028	-1.358

4.2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적응($r=.322^{**}$, $p<.01$)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r=.327^{**}$, $p<.01$)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적응($r=.291^{**}$,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31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이고, 교사관계는 학교생활적응($r=.287^{**}$,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240^{**}$, $p<.01$)과 정적 상관관계로 검증되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적응($r=.515^{**}$, $p<.01$)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부모와의 관계($r=.040^*$, $p<.05$), 또래관계($r=.086^{**}$, $p<.01$)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교사관계($r=-.048^{**}$,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044^*$, $p<.05$), 학교생활적응($r=-.049^{**}$, $p<.01$)과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의 수준이 높고, 남학생이 교사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부모와의 관계($r=.136^{**}$, $p<.01$), 또래관계($r=.079^{**}$, $p<.01$), 교사관계($r=.094^{**}$,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212^{**}$, $p<.01$), 학교생활적응($r=.267^{**}$,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이고, 성별($r=-.053^*$, $p<.01$)과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이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부모와의 관계($r=.084^{**}$, $p<.01$), 교사관계($r=.110^{**}$,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208^{**}$, $p<.01$), 학교생활적응($r=.434^{**}$, $p<.01$), 경제수준($r=.304^{**}$, $p<.01$)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와 교사관계의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 및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또래관계 및 성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N=3,406)

	1	2	3	4	5	6	7	8
1	1							
2	.359**	1						
3	.359**	.242**	1					
4	.327**	.318**	.240**	1				
5	.322**	.291**	.287**	.515**	1			
6	.040*	.086**	-.048**	-.044*	-.049**	1		
7	.136**	.079**	.094**	.212**	.267**	-.053**	1	
8	.084**	.027	.110**	.208**	.434**	.022	.304**	1

1=Social Relations(Parent), 2=Social Relations(Peer), 3=Social Relations(Teacher), 4=Stress Coping Style, 5=School Adjustment, 6=Gender, 7=Economic Status, 8=Academic Achievement.
* $p < .05$, ** $p < .01$

4.3 매개효과 검증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52]의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st of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N=3,406)

	Step 1	Step 2	Step 3
	SCS	SA	SA
constants	1.514***	1.073***	.492***
G(female)	-.061***	-.075***	-.051***
ES	.047***	.047***	.029***
AA	.025***	.075***	.065***
Pa	.144***	.142***	.087***
Pe	.200***	.194***	.117***
Te	.073***	.118***	.090***
SCS			.384***
R^2	.210	.337	.428
F	151.034***	287.498***	362.885***

Pa=Social Relations(Parent), Pe=Social Relations(Peer), Te=Social Relations(Teacher), SCS=Stress Coping Style, SA=School Adjustment, G=Gender, ES=Economic Status, AA=Academic Achievement.

*** $p < .001$

Durbin-Watson: 1.984

Gender: male '0', female '1', dummy variables.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수준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984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고, VIF 지수는 1.024~1.322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와의 관계($p < .001$), 또래관계($p < .001$), 교사관계($p < .001$)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높을수록($B=.144$), 또래관계($B=.200$), 교사관계($B=.073$)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1.0%이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와의 관계($p < .001$), 또래관계($p < .001$), 교사관계($p < .001$)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높을수록($B=.142$), 또래관계($B=.194$), 교사관계($B=.118$)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졌다.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3.7%이다.

매개효과 검증의 마지막 3단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p < .001$)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p < .001$), 또래관계($p < .001$), 교사관계($p < .001$)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의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Sobel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고[53],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와의 관계($z=9.945$, $p < .001$), 또래관계($z=11.482$, $p < .001$), 교사관계($z=5.081$, $p < .001$)에 있어서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높을수록($B=.144$), 친구관계($B=.200$), 교사관계($B=.073$)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이 높아져서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55이고, 또래관계는 0.077, 교사관계는 0.028이다.

Table 4. Test of sobel

	B	SE	z	p
Pa → SCS	.144	.013	9.945	<.001
Pe → SCS	.200	.015	11.482	<.001
Te → SCS	.073	.014	5.081	<.001
SCS → SA	.384	.017		

Pa=Social Relations(Parent), Pe=Social Relations(Peer), Te=Social Relations(Teacher), SC=Stress Coping Style, SA=School Adjustment.

5. 논의 및 제언

5.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경로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28-30]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부모의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32-34],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운 또래관계[54]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교사와의 관계[32]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42,43]이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특히 가족,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아졌다는 연구[46]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23,41],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중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41,55]과 같은 결과로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는 것을 강조한 연구들[50,56]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의 증진과 더불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시기는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아왔던 초등학교 때와 달리 다른 기대를 가정과 학교로부터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57],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사춘기가 시작되는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적응의 시기이다[14].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낮아지고,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교 입학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중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에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대규모 횡단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의 3차년도 연구로서, 1차 및 2차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수정·개발을 통해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더욱 보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전국 단위에서 표집된 중학생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 분석의 제한점으로 인해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통제변수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관계를 포함하여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Rutter. (1995).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1), 66-78.
- [2] S. J. Chang, S. W. Song & M. N. Cho.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pe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61-187.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2019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4] J. A. Bae, J. W. Bae & S. M. Cheon. (2006).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gram for middle school freshmen's school life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9, 53-68.
- [5] S. J. Park & J. I. Kim.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d their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7(3), 263-288.
- [6] J. G. Parker & S. R. Ashe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school childhood: link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4), 611-621.
- [7] A. Rossi & P.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8] S. Y. Son. (2016).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al assets of adolescent on the school adjustment: with focus of KCRPS data*.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Kongju.
- [9] H. K. Kang. (2006).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f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11), 149-159.
- [10] N. E. Garnezy & M. Rutter.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1] E. E. Werner & R. S. Smith.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12] H. J. Im. (2016). Influence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34(4), 265-285.
- [13] H. J. Lim, J. E. Han, J. S. Kim & H. Y. Seon (2016).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adolescents' career experiences and parental support on the longitudinal change of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5), 289-306.
- [14] J. Y. Bae. (2008).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54-464.
- [15] K. H. Kim & G. H. Yi. (2016).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social relationship, stress, deviation on youth's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9(3), 83-105.
- [16] S. K. Kang. (200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 of adolescents' attitu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155-180.
- [17] Y. H. Hagh. (2001).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8] J. H. Ko & M. J. Kim. (2009).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ementary students: the role of defense mechanism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4), 161-183.
- [19] N. S. Robinson, J. Garber & R. Hilsman. (1995). Cognition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53-463.
- [20] D. H. Jung. (2010). *Psychosocial stress*. Paju: KSI Publishing.
- [21] S. H. Jeong & M. Y. Sim. (2014). A study on the juveniles' stress of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the mediate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275-284.
- [22] R. S. Lazaru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3] E. H. Park & H. A. Kang. (2014).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225-246.
- [24] S. Kim. (2007). *A Study on the source of middle school student's maladjustment*.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25] G. Y. Lee. (2013).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stress coping styl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chool Health*, 26(1), 34-44.
- [26] J. A. Seo. (2013).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youth's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 135-164.
- [27] S. J. Chang, S. W. Song & M. Cho. (2011).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431-451.
- [28] S. A. Kim. (2012). The relationship of social relations and happiness i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0(4), 15-26.

- [29] H. S. Song & S. Y. Sung. (201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elf-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1), 129-157.
- [30] S. J. Yune, J. H. Ju & E. Y. Lee. (2013).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ystems, class cohesiveness,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2), 185-207.
- [31] K. N. Park & J. M. Kim. (2019).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and self-factor, emotional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2), 595-616.
- [32] K. S. Jung. (2004).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 [33] E. B. Yang, T. W. Kim, E. H. Park, S. Y. Lee & I. J. Chung. (2015). Predicts of school adjustment: a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general adolescents and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1, 311-331.
- [34] S. S. Kim.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upon depression/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343-364.
- [35] M. S. Yoon, H. J. Cho & H. H. Lee. (2009). Effects of study stress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usage and alcohol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2), 131-156.
- [36] E. M. Park.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37] H. S. Jeon & J. S. Chun (2019). Effects of peer and school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Journal of Youth Welfare*, 21(1), 1-28.
- [38] R.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Verlag.
- [39] C. B. Cho. (2006). The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adolescence on internet addic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5), 1-29.
- [40] E. J. Lim.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perceived psychological maltreatment by parents during a transition period on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41] J. Y. Jang, M. G. Park, J. H. Moon & S. M. Cheon.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school adaptation in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9(1), 75-90.
- [42] S. N. Seo, S. G. Lee & S. H. Lim. (2012). The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27-333.
- [43] H. S. Lee & H. J. Sunwoo. (20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6), 109-122.
- [44] B. S. Cho & S. K. Ahn.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tress coping styles. *Studies on Korean Youth*, 28(4), 225-253.
- [45] D. Markiewicz, H. Lawford, A. B. Doyle & N. Haggart.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127-140.
- [46] G. Min & H. S. Le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2(4), 7-16.
- [47] M. S. Kang, H. K. Choi & S. H. Lee. (2013).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daily life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4(4), 23-43.
- [48] M. R. Lee & B. H. Park.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xternalizing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achievement value,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 517-535.
- [49] S. H. Yoo. (2008).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157-180.
- [50] J. S. Won & J. S. Kim. (2016).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177-205.
- [51] K. Y. Jang, E. M. Sung, K. S. Lee, S. H. Jin, H. S. Choi & K. H. Kim. (2016).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I: IEA ICCS 2016*.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5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53] I. H. Lee. (2014). *Easy 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54] C. I. Choi. (2015). An effect of difficulties of daily life on school adaptation of youths: mediative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0*, 1-21.
- [55] S. Y. Kim. (2011).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positivity bia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56] H. Y. Jung & J. Y.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367-2381.
- [57] H. J. Lee & Y. J. Cho. (2010). The exploratory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variables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2)*, 253-278.

이 시 연(Si Yeon Lee)

[장학원]



- 199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6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syl@sjs.ac.kr